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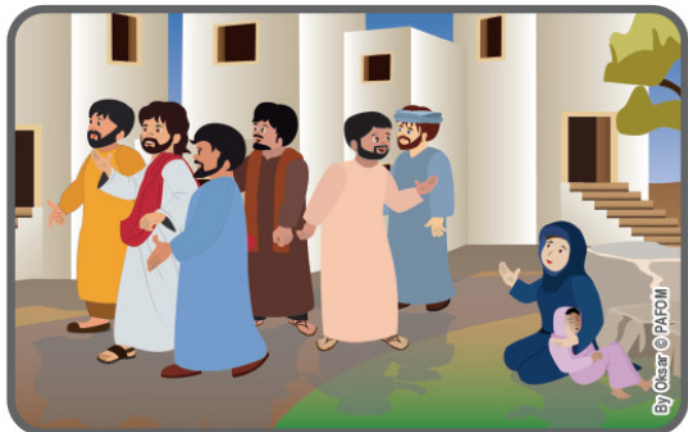


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청해요



포콜라레
천주교마리아사업회

“여인아!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.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.”
(마태오 15,28)



예수님과 제자들은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여행 중이었어요. 그 지역의 한 부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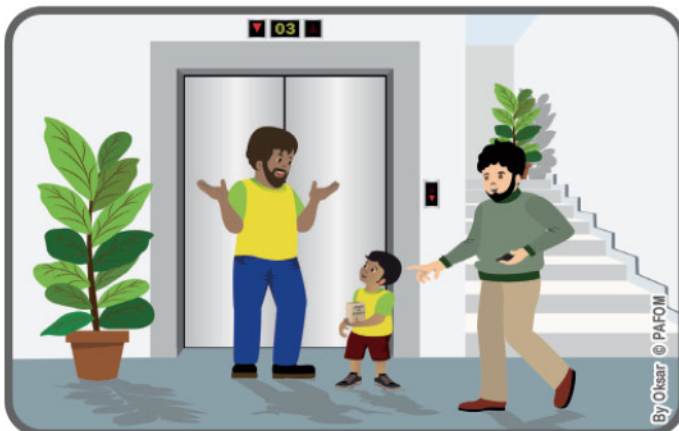
그 부인은 계속해서 큰소리로 도와주시길 청했어요. 제자들도 말없이 걷고만 계시는 예수님을 뒤 따르며 그 부인의 간절한 청을 들어달라 부탁드렸어요.



그 여인은 큰 믿음으로 다시 한 번 예수께 '주님, 도와주세요' 하고 간청해요.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"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." 그 순간 아픈 딸의 병이 나았어요.



프란치스코는 브라질에 살고 있어요. 프란치스코와 친구들은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고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. 그들은 모금함을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. 그 날도 프란치스코는 모금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.



엘리베이터에서 프란치스코는 아빠에게 물었어요. "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청해 보면 어떨까요?" 아빠의 답은 달랐어요. "이웃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 할거란다."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 탄 한 남자분이 호기심 있는 표정으로 모금함에 적힌 가난한 이들을 위해 라는 글을 유심히 보았어요.



그분이 "왜 모금을 하고 있니?" 라고 프란치스코에게 물었어요. 그 때 프란치스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. "저희는 4젠이에요. 저는 4젠이기에,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어요!" 그분은 4젠에 대해 잘 모르지만, 프란치스코의 대답에 감명받아 도움을 주세요. 아빠는 프란치스코의 기쁜 모습을 보시며 행복해 하셨어요.